

가을 광주호 꽃과 클래식에 빠져볼까

내달 14~ 23일 생태타운 축제

광주시향 공연·화분 만들기 등

국화 3만본 정원 즐길거리 다양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가면 추억과 예술이 어우러진 가을 정취 그윽한 축제를 만날 수 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14일부터 23일까지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원에서 역사와 국화가 어우러진 가을 풍경을 만끽하고, 보름달빛 아래 클래식 선율에 취해보는 등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먹거리가 있는 ‘광주생태타운 가을꽃한마당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시에서 자체 생산한 국화 3만여본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마을공동체의 왕버들음악제와 남도누정축제·충효도에 축제·시립교향악단의 공연 등이 펼쳐지며, 충효동부녀회 중심으로 특산물 판매, 먹거리장터가 운영된다.

가을꽃 전시는 ‘꽃으로 수백파티’라는 주제로 무등산수박을 씹터로 형상화한 상징정원, 가을추억정원, 커뮤니티정원, 업사이클정원 등 6개의 존에서 생태원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사조류·허브류·국화류로 구성된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또한 수변 역사원을 보강하고 가을생태자연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1만여㎡의 산비탈 구절초원, 코스모스원과 메밀원을 조성했다.

이중 가을추억정원은 추억의 교실, 방과 후 놀이, 담장너머 감 따는 모습, 수레타는 모습을 화훼류와 소품들로 어우러지도록 스토리화해 어릴적 추억과 향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볼거리작품이 설치된다.

업사이클정원은 폐품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소재와 우리꽃을 활용해 정원을 연출

하며, 작품을 예술화해 계절마다 가끔과 돌봄으로 지속가능한 정원의 방향을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예술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시립예술단의 공연, 왕버들 음악제, 생태영화상영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가을꽃한마당 축제기간 동안 시립국악단공연(10월14일), 남도누정축제 개막행사(10월15일~16일), 시립관현악단 연주(10월15일), 무등산 분청사기 도예축제(10

월14~23일), 왕버들음악제 왕버들음악제(10월22일) 등 복합장르의 다양한 공연이 선보인다. 또 정원문화와 연계해 10월16일 오후 6시에 왕버들나무 옆에서 생태영화도 무료로 상영한다.

특히 광주시는 매년 봄꽃·가을꽃 한마당 축제에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를 개최기로 하고, 올해에는 10월15일 오후 6시 30분 호수생태원 관할대에서 호수의 물과 보름달 정취를 살려 ‘제 1회 광주호 달빛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추진한다.

생태원내 현장체험은 돗자리 도시락화분 만들기 체험, 오물조물 지질구조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등 현장체험과 충효마을 특산물판매와 먹거리장터가 개설된다. 돗자리 도시락화분만들기 체험은 돗자리 위에서 연인들끼리,가족끼리 도시락화분에 정원을 담아 만들어 내는 체험으로 ▲10월15~16일, 22일~23일 오후 3시~4시에 열리며 ▲재료는 무료로 제공하고 ▲현장접수 선착순 30팀과 함께 진행한다.

노원기 공원녹지과장은 “광주호 생태타운 봄꽃·가을꽃 한마당 축제가 무등산권 호수생태원을 배경으로 한 광주만의 특화된 고품격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특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롯데 월드컵점 사회환원금

활용안 오늘 시민 첫 회의

광주시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무단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으로부터 받는 사회환원금 130억원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활용방안을 듣는다.

광주시는 사회환원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21일 첫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광주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광주시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환원금에 대한 구체적 집행사업과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롯데에서 납부하는 사회환원금은 시민이 내고 있는 세금과 같은 것으로 환원의 의미를 살리고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며 “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2007년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형할인점을 운영해오면서 무단전대로 지적받아 올해 7월 광주시민에게 사과와 함께 무단 전대매장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원상복구하고 향후 10년간 총 130억원을 사회환원키로 광주시와 약정했다. /채희종기자 chae@

‘착한 일자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내달 10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최근 1년간 일자리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6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고용우수기업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5년 9월~2016년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신청대상 기업은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등이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

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디자상품과 지원 등 총 15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35일간)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기업은 시 홈페이지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시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청소년 노동권 지켜주는 작업장 찾습니다”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청소년작업장을 공모한다.

광주시는 학교를 그만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자리와 연결되지 못하는 소모성 알바에 종사하고, 노동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하층 노동을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이 보장된 일터에서 노동을 통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작업장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작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관련 기술교육 등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대인시장에 목공작업장 ‘생각하는 손’과 남구 금동에 사진과 영상 등 미디어작업장 ‘찰나’를 운영하고 있다.

작업장 응모자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및 개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작업장으로 선정되면 지도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062-613-2292),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2-376-1324)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비엔날레~문화전당 셔틀버스 운행

23일부터 이용료 1000원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에서 열리는 축제·행사 현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하는 셔틀버스가 23일부터 운행된다.

광주시는 9월과 10월에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추억7080충장축제, 영산강서창들녘역새축제, 광주세계김치축제 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축제와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셔틀버스는 운행 코스는 각 축제에 맞춰 구성됐다. 우선 제5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기간(9월23일~9월26일)은 ▲제1코스 광주송정역·광주김치타운·도시농업박람회장(풍암동 호수공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터미널·비엔날레·문화전당 ▲제2코스는 광주비엔날레 정문·문화전당-월드컵경기장 주차장·도시농업박람회장(풍암동 호수공

원)-광주김치타운이다. 추억의7080충장축제 기간(29일~10월3일)은 광주송정역·터미널-비엔날레 정문-충장축제장(문화전당), 영산강서창들녘역새축제 기간(10월1일~10월29일)은 광주송정역·서창들녘역새축제장(극락교)-터미널·비엔날레-문화전당, 광주세계김치축제(11월18일~11월22일) 기간은 광주송정역·터미널·문화전당·행사주차장-광주세계김치축제장(김치타운)를 운행한다.

셔틀버스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광주의 교통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터미널, 축제·행사장, 문화전당 등에서 탑승할 수 있다. 탑승료는 성인(국가유공자, 경로, 초·중·고등학생 포함)은 1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관광협회(062-233-3399),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사무국(062-672-0922),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23)에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저출산, 건강보험으로 극복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총의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강연 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을 초청,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건보공단 제공>

공공체육시설 64곳 유해물질 전수조사

市, 기준 초과 5곳 사용 제한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관내 공공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운동장, 공원, 하천 내 공공체육시설 72곳 중 KS기준 제정년도 이후에 설치된 시설 등 8곳을 제외한 64곳에 대해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10월

말 나올 예정이다.

현재 검사를 마친 14개 시설 중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5곳(인조잔디 3, 우레탄 2)에 대해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임시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 조치를 했다. 부득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 후 손, 발 씻기, 겉옷 털기 등을 하도록 이용 안전수칙을 안내했고, 부지포와 공기압축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 내, 호텔급 모텔, 손실보고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평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대출금만 안고,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